

나는 고등학교 3학년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있다. 그러나 회사나 레스토랑, 버스나 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한다. 나도 그런 장소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다. 한국에서도 담배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오래전일이다. 고등학생의 약 50%정도가 담배를 피우고 있고, 요즘은 담배를 피우는 여성들이 많아졌다. 나는 담배가 좋지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. 그래서 TV방송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멋있다고 보여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. 또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여 벌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.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신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권리가 아닐 것이다.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장소를 선택하여 담배를 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